

잠잠해진 주식 열풍...개미들 코스닥으로 갔다

광주·전남 지난달 전체 거래대금 13조220억 코스피 1조4121억 줄고 코스닥 9098억 늘어

지난달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지역 주식투자 열풍이 시든 가운데 코스닥 일부 종목만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37개 상장사 가운데 25개사는 지난달 시가총액이 전달보다 8000억원 넘게 감소했다.

5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2021년 7월 광주·전남 지역 주식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주식투자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 합계)은 13조220억원으로, 전달(13조5242억원)보다 3.7%(-5022억원) 감소했다. 거래량은 16억8573만주에서 13억3408만주로, 20.8%(-3억5166만주) 줄었다.

지역 주식 거래대금은 5월 10조8936억원에서 6월 13조5242억원으로 24.1%(2조6306억원) 증가

했지만 지난달 반락했다.

주식시장별로 보면 전달보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16.8%(8조4210억원→7조899억원) 줄어든 반면, 코스닥은 17.8%(5조1032억원→6조130억원) 증가했다.

지역민들이 코스피 투자를 1조4121억원 줄이고 코스닥 투자는 9098억원 늘린 것이다.

주식거래량은 코스피는 34.1%(8억7407만주→5억7579만주), 코스닥은 6.6%(8억1166만주→7억5828만주) 각각 감소했다.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지역 투자자들 코스피 거래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와 카카오, HMM, 네이버, 두산중공업 등 대형주가 여전히 10위권에 들었지만 모두 전달보다 투자액이 줄었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삼성전자 투자액은 2453억

원으로, 한 달 새 4.8%(-123억원) 감소했다. 카카오(-27.0%)와 두산중공업(-77.7%), 네이버(-21.6%), 신풍제약(-20.7%), 컨테이너 선사HMM(-19.7%) 등도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지난달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받은 진원생명과학에는 전달보다 15.7%(474억원) 많은 3493억원의 지역 투자금이 몰려 거래종목 1위에 올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난달 10만원대 신고가를 쓴 '카카오게임즈'에 3491억원에 달하는 지역민들의 투자가 이뤄졌다. 씨젠은 전달보다 거래대금이 22.0%(239억원) 많은 1327억원을 기록하며 카카오게임즈에 이어 코스닥 지역 거래대금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 37개 가운데 25개사는 지난달 시가총액이 전달보다 감소했다. 한 달 새 줄어든 시총은 8157억원에 달한다.

유가증권 상장사 16개사 중 금호타이어(-3791억원)와 DSR제강(-115억원)을 포함해 12개사의

시총 5271억원 줄었다.

코스닥 21개사 중에서는 고려시멘트(-193억원), 상상인인더스트리(-103억원), 피피아이(-98억원) 등 13개사의 시총 2886억원이 한 달 새 증발했다.

시총이 전달보다 증가한 상장법인은 코스피에서는 부국철강(398억원 ↑), 다스코(91억원 ↑), 금호에이치티(13억원 ↑), 한국전력(321억원 ↑) 등 4개사였다. 코스닥은 에니젠(131억원), 대한그린파워(466억원), 와토스코리아(27억원), 남화토건(65억원), KPX생명과학(18억원) 등 5개사이다.

김중은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장은 "지난달 미국 증시 강세 영향 등으로 코스피 지수는 3300선을 넘으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지만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중국 정부 기술기업 규제 등 영향으로 코스피 투자거래가 전달보다 줄었다"며 "전체 주식시장이 약해지면 '작전성' '데마성' 개별 종목이 강세를 보이는 특성에 따라 코스닥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76.13 (-4.25)
↑ 코스닥	1059.54 (+11.61)
↓ 금리(국고채 3년)	1.414 (-0.004)
↑ 환율(USD)	1143.70 (+0.10)

코스피 나흘만에 하락 외국인 사흘 연속 매수 우위

코스피가 나흘 만에 하락했다.

5일 코스피는 전달보다 4.25포인트(0.13%) 내린 3276.13에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720억원을 순매수하며 사흘 연속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기관도 1894억원을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은 2597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코스피는 삼성전자(-0.97%)와 SK하이닉스(-0.83%)가 나흘 만에 하락하면서 상승 동력이 부족한 모습이었다. 업종 중에서는 운송장비(-0.95%), 철강·금속(-0.52%), 전기·전자(-0.48%) 등이 약세를 나타냈다.

반면 외국인이 순매수한 네이버(+2.19%), 삼성SDI(+3.49%) 등은 올랐다.

코스닥지수는 전달보다 11.61포인트(1.11%) 오른 1059.54에 마감하며 9거래일 만에 증가 기준 연고점을 경신했다. 전고점은 지난달 23일 기록한 1055.50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이 2396억원, 기관이 121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2446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권에서는 엘앤에프(+8.31%), 예코프르비엠(+2.83%), 펄어비스(+2.12%), 카카오게임즈(+0.96%) 등이 상승했다.

/연합뉴스

국내 상장사 '유리천정' 여전

임원 100명 중 여성 임원 5명 불과 OECD 평균 '25%'에 한참 못미쳐

국내 상장기업 임원 100명 중 여성 임원은 5명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OECD 평균(4명 중 1명)에 턱없이 못 미친다.

여성가족부가 5일 발표한 '2021년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2246개의 전체 임원 3만2005명 중 여성은 1668명으로 전체의 5.2%로 나타났다.

전체 상장법인에 소속된 여성 근로자는 40만 6631명, 여성 임원은 1668명으로 여성 근로자 244명당 여성 임원 1명이 있는 셈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내 기업들의 여성 차별 정도를 지표로 만든 '유리천장지수'를 인하여 OECD

회원국 기업의 평균 여성 이사회 임원 비율이 25.6%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상장법인 2246개 중 여성 임원을 선임한 기업은 815개(36.3%)로 집계됐다. 나머지 1431개(63.7%)는 여성 임원이 없다.

임원 형태별로 전체 등기임원 1만3368명 중 여

성은 4.8%(648명), 미등기임원 1만8637명 중 여성은 5.5%(1020명)로 조사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152개 중 여성 등기임원을 1명 이상 선임한 기업은 55.9%(85개)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난해

(30.6%)보다 25.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지역 상장법인 가운데 한국전력과 금호타이어가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한전 등기임원 14명 가운데 14.3%에 해당하는 2명이 여성이었다. 지난해에는 한 명(7.1%)이었다.

금호타이어 여성임원 비율은 전년과 같은 11.1%(9명 중 1명)이었다.

전국 평균 비율은 8.3%(1173명 중 97명)으로 지난해보다 3.5%포인트 증가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이 독차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이사는 의결권이 있는 등기임원을 의미한다.

/백희준 기자 bhj@

“클린7 광은문화”로 건강한 기업

광주은행 윤리경영 실천 앞장

광주은행은 윤리경영의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CLEAN7(클린7) 광은문화' 실천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 추진해오던 'CLEAN5 광은문화' 캠페인에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와 이해 상충 행위 금지 항목을 추가했다.

CLEAN7 광은문화 실천과제는 신규 2가지 이외에 ▲건강한 회식문화 정착 ▲인직원 간 선물 수수 금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불건전 사행성 행위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다.

'CLEAN7 광은문화'는 지난 2017년 송중욱 행장이 취임한 뒤 추진한 사내 캠페인으로 '고객 중심 은행, 직원이 행복한 은행'의 기업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등 광주은행만의 특유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행장과 임직원들은 '직원 상호간 칭찬하기'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발표·보고 형식이었던 경영 전략회의를 각 영업점장과 일대 일로 의견을 교환하는 '톡톡데이'로 바꿨다. 짧은 'MZ세대'와 소통을 위한 '송프로와 함께하는 토크 공감 한마당'은 8차례에 걸쳐 열렸다.

'CLEAN7 광은문화'는 건전한 기업문화 형성과 직원 내부 만족도 향상 등으로 이어져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의 2021년도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 4년 연속 1위 선정 등의 성과로 나타나기도 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올바른 기업문화 정착에 솔선수범하고 고객과 지역민이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송중욱(앞줄 왼쪽 5번째) 은행장과 직원들이 'CLEAN7(클린7) 광은문화'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신재생에너지 일자리 창출 전력거래소·창업진흥원 협약

전력거래소와 창업진흥원은 지난 4일 신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014년부터 신재생에너지사업 예비창업자를 위한 '신재생창업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을 수료한 예비창업자는 4000여 명에 달한다.

전력거래소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새롭게 개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전반에 대한 기본지식과 관련제도, 실무사례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창업진흥원이 보유한 온라인 교육기반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창업인력을 키워낼 계획이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기술·창업 온라인교육 공동 운영 ▲홍보채널 공동 활용 및 창업실적·교육성 정보 공유 등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행복이벤트

행복이벤트

행복이벤트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2개월 연 1.7% 세전 / 만기해지

18개월 연 1.77% 세전 / 만기해지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출자금은 예금저축보통예대상이 아니고 조합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예탁금 및 저금은 신협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합니다.
- 5)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6)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세공과금(22%)은 당 신협이 부담하며, 경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266-4150 (광주 북구 문흥로 38)

매곡지점 572-4150 (북구 설죽로 315번길1)

양산지점 573-4150 (북구 양산로 59)

침단지점 576-4150 (북구 침단안로1번길29-2)

운암지점 528-4150 (북구 북문대로 89)

동광주지점 264-4150 (북구 동문대로 187)

동림지점 513-4150 (북구 북문대로 238)

각화지점 263-4150 (북구 동문대로 283, 285)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신협중앙회 심의필 제2021-6호(2021.05.28.) 유효기간 2021.12.31.까지